

2026
07.24

주간 제 483 호

중국 창업

WEEKLY 뉴스
CHINA 창업
KIC 뉴스

글로벌혁신센터 (KIC 중국)

문의 | +86.10.6780.8840 | info@kicchina.org

CONTENTS

WEEKLY 뉴스

GPU 10만 장 규모 컴퓨팅 자원 풀 가동, 전 산업으로 확대	1
차세대 태양광 발전 기술, 세계 기록 경신	2
"수주 물량 2031년까지 확보" 3년간 가격 300% 상승, 빅테크 구매 확대	3

CHINA 창업

[산업분석] 세계 첫 'AI 에이전트 스마트폰' 등장	5
[산업분석] 다완구에 펼쳐진 'AI 하드웨어 생태계'	11
[기업분석] 중국 피지컬AI 로봇기업-우바인텔리전스(五八智能)	17
[지역분석] 헤이룽장성 치치하얼 하이테크산업구	21

KIC 뉴스

[행사공고] 2026 베이징대학교 창업캠프 서울 로드쇼	24
[행사공고] 2026 WRC 한중로봇혁신협력포럼	25

행사 정보

중국 과학기술 분야 행사 정보	26
------------------	----

WEEKLY 뉴스



- | | |
|--|---|
| GPU 10 만 장 규모 컴퓨팅 자원 풀 가동, 전 산업으로 확대 | 1 |
| 차세대 태양광 발전 기술, 세계 기록 경신 | 2 |
| "수주 물량 2031 년까지 확보" 3 년간 가격 300% 상승, 빅테크 구매 확대 | 3 |



GPU 10만 장 규모 컴퓨팅 자원 풀 가동, 전 산업으로 확대

7월 9일 열린 '2026 허난성 인공지능대회(2026河南省人工智能大会)'에서 국가 슈퍼컴퓨팅 인터넷의 핵심 거점이 정식 가동됐다. 중국 최초로 슈퍼컴퓨팅과 AI 컴퓨팅을 결합한 GPU 10만 장 규모의 컴퓨팅 자원 풀이다. 이번 핵심 거점 구축으로 허난성 일대의 컴퓨팅 자원 규모가 대폭 확대됐으며, 국가급 컴퓨팅 인프라도 대형 과학연구 중심에서 전 산업이 활용할 수 있는 혁신 기반으로 전환되고 있다.

국가 슈퍼컴퓨팅 인터넷은 현재 350만 개 이상의 CPU 코어와 25만 장의 GPU를 확보한 중국 최대 규모의 통합 컴퓨팅 네트워크다. 정저우(郑州) 핵심 거점은 올해 2월 시범 운영을 시작한 이후 GPU 규모를 3만 장에서 10만 장으로 빠르게 확대했다. 수요 증가세도 당초 예상보다 크게 웃돌았다. 차오전난(曹振南) 중커수광(中科曙光, Sugon) 부총재는 중국 내 컴퓨팅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고 있으며, 이를 필요로 하는 사업과 이용자층도 예상보다 훨씬 광범위하다고 밝혔다. 이 같은 수요 증가가 지속적인 증설을 이끌었다는 설명이다.

허무쥔(何牧君) 중커수광 AI 컴퓨팅 부문 총재는 GPU 10만 장 규모의 단일 클러스터를 구축한 것은 중국에서 처음이라고 밝혔다. 이 클러스터를 슈퍼컴퓨팅 인터넷의 통합 운영 체계에 연결하면 분산된 컴퓨팅 자원을 하나로 모아 활용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소재와 바이오, 쿼트 등 다양한 연구를 지원하고, 산업용 시뮬레이션과 모델 훈련에 드는 비용도 줄일 수 있다. AI 개발자가 기술 검증부터 실제 적용까지 진행하는 데 걸리는 기간도 단축할 수 있다.

이 플랫폼은 수익 창출보다 누구나 컴퓨팅 자원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정식 가동과 함께 다양한 지원책도 내놴다. 신규 가입자에게는 GPU 200시간과 토큰 1,000만 개, 저장공간 500GB로 구성된 패키지를 제공한다. 연구자 프로필을 작성하면 전용 컴퓨팅 자원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지인을 초대하면 최대 GPU 1,000시간을 추가로 제공받을 수 있다. 대학 교수와 학생, 청년 연구팀은 적은 비용으로 알고리즘을 검증할 수 있으며, 중소기업과 개발자도 애플리케이션 시제품을 빠르게 구축할 수 있다.

플랫폼은 비용 부담을 낮추는 데 그치지 않고 MaaS 서비스와 애플리케이션 마켓, AI 커뮤니티를 통해 이용 절차도 간소화했다. 사용자는 복잡한 설정 없이 LLM API와 AI 에이전트, 산업별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할 수 있다. 대규모 지원 인력도 배치해 연구자들이 개발 과정에서 겪는 기술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있다. 시범 운영 이후 활성 이용자는 1만 명대로 늘었고, 누적 이용자는 100만 명을 넘어섰다. 이용자 평균 연령도 낮아지면서 중학생부터 전문 연구원까지 고성능 컴퓨팅 자원을 활용하고 있다.

플랫폼은 개발자와 생태계 협력사, 과학 컴퓨팅 에이전트 분야를 대상으로 3대 공동 개발 프로그램도 시작했다. 참여자에게는 최대 1억 개 규모의 토큰과 중국산 GPU 수천 장 규모의 컴퓨

팅 자원을 지원한다.

차오 부총재는 컴퓨팅 자원만으로는 생산성을 창출할 수 없으며, 산업 현장에서 활용될 때 비로소 가치가 생긴다고 강조했다. 현재 이 플랫폼은 중국 신에너지차 기업의 절반 이상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상업우주와 기상, 석유, 바이오의약 등 다양한 분야에서도 활용되고 있다. 정저우 핵심 거점은 허난성(河南)의 지리적 이점과 다양한 산업 기반을 활용해 더 많은 기업과 연구자가 컴퓨팅 자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국가급 컴퓨팅 인프라를 산업 전반의 혁신으로 연결해 나갈 계획이다.

(출처: 광밍망)

차세대 태양광 발전 기술, 세계 기록 경신

중국과학원(中国科学院) 화학연구소가 최근 페로브스카이트와 유기 태양전지를 결합한 탠덤 태양전지를 개발했다. 인증 결과 광전변환효율은 28.04%로 세계 최고 기록을 경신했으며, 태양전지의 효율과 안정성을 높일 새로운 기술로 주목받고 있다.

이 전지는 얇고 가벼우며 유연해 다양한 곳에 부착할 수 있다. 발전 효율이 높고 단위 무게당 출력이 크다는 점도 장점이다. 빛을 흡수하는 층의 두께가 $1\mu\text{m}$ 미만이어서 유연한 플라스틱이나 금속 포일 등에 적용할 수 있으며, 차량 유리나 배낭, 의류 등 다양한 곡면에도 부착할 수 있다. 빛이 닿는 곳이면 어디서든 전기를 생산할 수 있어, 무겁고 두꺼운 데다 지붕이나 발전소 등 고정된 장소에만 설치할 수 있었던 기존 단결정 실리콘 태양전지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다.

세계 최고 수준의 효율을 구현한 비결은 페로브스카이트와 유기 소재를 결합한 탠덤 구조에 있다. 상부의 페로브스카이트 소재는 촘촘한 그물처럼 에너지가 높은 청자색광을 효과적으로 흡수하고, 하부의 유기 소재는 성긴 그물처럼 에너지가 낮은 적색광과 적외선을 흡수한다. 두 소재가 서로 다른 파장대의 빛을 나눠 흡수하면서 발전 효율을 크게 높였다.

현재 이 기술은 우주와 지상에서 실증 시험을 거치며 활용 범위를 넓혀가고 있다. 단일접합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와 페로브스카이트·유기 탠덤 태양전지는 선저우(神舟) 23호에 실려 중국 우주정거장으로 보내졌다. 실제 우주 환경에서 작동 시험을 진행해 신뢰성과 내구성을 검증하고, 우주선 전력 공급 장치의 경량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차세대 태양전지는 우주에서의 기술 검증부터 지상의 일상적인 활용까지 적용 범위를 넓히며 에너지 생산 방식에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앞으로 햇빛이 닿는 모든 표면을 발전에 활용하면서 태양광 기술을 일상에 폭넓게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출처: 양스신원)

“수주 물량 2031년까지 확보” 3년간 가격 300% 상승, 빅테크 구매 확대

인공지능 열풍이 컴퓨팅 자원 경쟁을 넘어 에너지 인프라 분야로 확산되고 있다. 대규모 AI 데이터센터 건설이 속도를 내면서 그동안 크게 주목받지 못했던 가스터빈 시장도 폭발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아마존과 구글, 메타, 오라클, 스페이스X 등 빅테크 기업들은 엔트로픽, 오픈AI 등 AI모델을 구동하는 데 필요한 컴퓨팅 자원을 확보하기 위해 AI 데이터센터 건설을 서두르고 있다. 하지만 지역 전력망의 전력 공급이 빠르게 늘어나는 컴퓨팅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면서, 자체 가스발전소 건설이 현실적인 대안으로 떠올랐다. 가스터빈은 가스발전소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설비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최근 미국 텍사스주 데이터센터에 자체적으로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 GE버노바에서 대형 가스터빈 7기를 구매했다. 각 설비는 길이 9.4m, 가격은 한 기당 2억5,000만 달러가 넘는다. 천연가스를 연소시켜 터빈 날개를 회전시키고, 이 과정에서 발생한 기계에너지를 전기에너지로 변환해 서버 클러스터에 지속적으로 전력을 공급한다. GE버노바의 파블로 코지너 최고상업책임자(CCO)는 가스발전 관련 수주 물량의 약 20%가 데이터센터와 AI 관련 사업에서 나온다고 밝혔다. 전체 주문은 이미 2030년까지 밀려 있으며, 일부 물량의 납기는 2031년까지 잡혀 있다.

수요가 급증하면서 설비 가격도 크게 올랐다. 미국 투자기관 멜리우스리서치에 따르면, 가스터빈 가격은 최근 3년간 약 300% 상승했다. GE버노바 주가는 최근 6개월간 70% 넘게 올랐으며, 경쟁사인 캐터필러와 지멘스에너지의 실적도 호조를 보이고 있다.

한편 데이터센터 건설과 가스터빈 발전을 둘러싼 환경 논란도 커지고 있다. GE버노바는 최신 가스터빈의 발전 효율이 20년 전보다 두 배 높아져 같은 양의 연료로 더 많은 전력을 생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전문가들은 가스터빈만으로 AI 시대의 전력 수요를 모두 충족하기는 어렵다고 지적한다. 앞으로 데이터센터를 안정적으로 운영하려면 여러 에너지를 함께 활용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AI 산업의 성장을 뒷받침할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에너지 체계를 구축하는 것 역시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출처: 런민르보)

참고자료

- ◆ 광밍망(光明网). GPU 10 만 장 규모 컴퓨팅 자원 풀 가동, 전 산업으로 확대
<https://baijiahao.baidu.com/s?id=1870591519476992846&wfr=spider&for=pc&searchword=国家超算互联网核心节点落地郑州>
- ◆ 양스신원(央视新闻). 차세대 태양광 발전 기술, 세계 기록 경신
<https://mp.weixin.qq.com/s/gL73iiYTWbyqVrmwseebtA>
- ◆ 런민르보(人民日报). “수주 물량 2031년까지 확보” 3년간 가격 300% 상승, 빅테크 구매 확대
<https://mp.weixin.qq.com/s/Kh56wPCJL1Yp0YQYiF5Vg>

CHINA 창업



[산업분석] 세계 첫 'AI 에이전트 스마트폰' 등장	5
[산업분석] 다완구에 펼쳐진 'AI 하드웨어 생태계'	11
[기업분석] 중국 피지컬 AI 로봇 기업-우바인텔리전스(五八智能)	17
[지역분석] 헤이룽장성 치치하얼 하이테크산업구	21



[산업분석] 세계 첫 'AI 에이전트 스마트폰' 등장

지난 7월 13일 스텝펀(StepFun, 阶跃星辰)이 세계 최초의 AI 네이티브 단말기 브랜드 'STEPX'를 출시하고, 첫 스마트폰(Agentic Phone) 'STEPX Neo'를 공개했다. STEPX Neo에는 AI 전용 운영체제(OS) 'Step AOS(Step Agentic-native OS)'와 개인 AI 에이전트 'Amoo'가 기본 탑재된다. 이날 발표회에서는 세계 최초의 AI 네이티브 스마트폰 'STEPX Neo'도 함께 공개됐다.



현재 시중에 출시된 AI 스마트폰 대부분은 기존 OS에 AI 기능을 추가한 형태다. OS 자체가 사람이 직접 조작하는 구조로 설계된 데다, 소프트웨어 기능도 사용자 인터페이스 안에 묶여 있다. 이 때문에 AI 에이전트가 이를 직접 호출해 작업하기 어렵고, 여러 애플리케이션을 연계하거나 복잡한 작업을 연속으로 수행하는 데에도 한계가 있다.



스텝펀은 자체 개발한 AI 에이전트 운영체제 'Step AOS'를 기반으로 개인 AI 에이전트 'Amoo'가 탑재된 스마트폰 'STEPX Neo'를 선보였다. 스마트폰 조작 방식이 사람이 기계를 직접 조작하

던 구조에서 AI 에이전트와 협업하는 구조로 바뀌는 셈이다. 스텝편은 멀티모달 기술 강화와 OS 구조 개편, AI 단말기의 조기 상용화를 핵심 전략으로 삼았다. 이는 각각 에이전트에 필요한 '두뇌'와 '환경', '몸'에 해당하며, 이를 바탕으로 AI와 단말기가 하나로 연결된 완결형 구조를 구축하고 새로운 형태의 AI 네이티브 기기를 개발했다.

멀티모달 기술로 AI 에이전트 스마트폰의 '두뇌' 구축

모델 성능이 크게 향상되면서 올해 초 AI 에이전트가 빠르게 주목받기 시작했다. 스텝편은 3년 전부터 AI 에이전트 시대의 수요를 내다보고 멀티모달 기술을 개발해 왔다. 현재 Pro와 Flash, Edge로 이어지는 모델 제품군을 갖추고 음성과 이미지, 영상, 행동 등 다양한 형태의 데이터를 처리하고 있으며, 특히 음성 모델 분야에서 앞선 기술력을 확보했다. 최근 공개한 온디바이스 AI 모델 'Step Edge'는 29개 AI 성능 평가에서 동급 모델 가운데 최고 수준의 성능을 기록했다.

스텝편은 이러한 멀티모달 기술과 모델 제품군을 기반으로 AI 에이전트 스마트폰 등 AI 전용 단말기에 특화된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다.



스마트폰에 탑재된 AI 에이전트는 물리적 환경과 디지털 환경을 모두 인식한다. 물리적 환경에서는 여러 센서를 통해 음성과 시각 정보 등 멀티모달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통합해 밀리초 단위로 주변 상황을 파악하고, 별도로 AI를 호출하지 않아도 사용자에게 바로 반응한다. 디지털 환경에서는 화면에 표시된 정보가 무엇을 의미하고 어떻게 구성돼 있는지, 사용자가 어떤 흐름으로 기능을 이용해 왔는지를 파악한다. 이를 바탕으로 사용자에게 필요한 작업을 미리 예측하며, 관련 데이터는 모두 기기 내부에서 처리해 보안성을 높였다.

스텝편은 두 영역의 정보를 6개 레이어로 나눠 기억하고, 이를 3단계에 걸쳐 지속적으로 학습, 개선하는 자체 기술을 AI 스마트폰에 적용했다. 그 결과 PersonalMem과 LongMemEval 등 평가

지표에서 세계 최고 성능(SOTA)을 기록했다. 많은 정보를 빠짐없이 기억하고, 필요한 내용을 정확하고 신속하게 불러올 수 있다는 설명이다.

Step AOS는 이러한 인식, 기억 능력을 바탕으로 기기와 클라우드의 연산을 효율적으로 배분한다. 기기에서는 100밀리초 단위로 빠르게 반응하고, 클라우드에서는 반복적인 심층 추론을 수행한다. 복잡한 작업도 전체 과정을 조율해 처리함으로써 속도와 추론의 깊이를 모두 확보했다.

MCP와 A2A, CLI 등 다양한 프로토콜도 지원한다. 이를 통해 AI 에이전트는 각종 톨과 시스템 명령을 직접 실행하고 다른 에이전트와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다. 사용자가 한 문장으로 요청하면 복잡한 작업도 스스로 처리한다.



Step AOS는 인식과 기억, 판단, 실행을 하나로 연결해 생각한 내용을 실제 행동으로 옮길 수 있도록 했다. 기존 OS에 AI 기능을 추가한 'OS+AI' 방식과는 다른 AI 스마트폰 구조를 구현한 것이다.

시스템 전면 개편, AI 에이전트의 성장 '환경' 마련

스텝퍼는 AI 에이전트를 중심으로 시스템 기반을 처음부터 다시 설계해, 진정한 의미의 에이전트 네이티브 환경을 구현했다.

기존 'OS+AI' 방식은 사람이 직접 조작하는 구조로 설계돼 있다. 기존 스마트폰 OS에 대형언어모델 연동 플러그인이나 음성비서 기능을 추가했을 뿐, 사람의 직접 조작을 전제로 한 시스템의 본질은 달라지지 않았다. 이처럼 모든 기능이 사람의 사용에 맞춰진 환경에서 AI 에이전트는 세 가지 문제에 직면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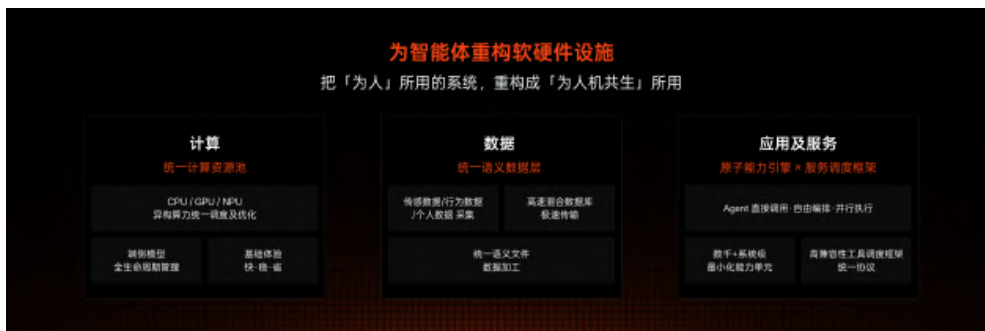


첫 번째는 '기억의 한계'다. 데이터가 시스템의 여러 레이어와 기기에 흩어져 있어 애플리케이션 단위의 AI 에이전트는 해당 앱의 정보만 기억할 수 있다. 애플리케이션과 기기의 경계를 넘어 정보를 통합적으로 기억하려면 운영체제(OS) 단계부터 구조를 다시 설계해야 한다.

두 번째는 '판단 과정의 한계'다. 기존 시스템은 기기의 빠른 처리와 클라우드의 심층 추론을 하나로 조율하지 못한다. AI 에이전트 시스템 단계에서 기기와 클라우드를 연계하고, 빠른 처리와 심층 추론을 조합해야 속도와 결과의 완성도를 모두 확보할 수 있다.

세 번째는 '실행의 한계'다. 전용 인터페이스가 없으면 화면 터치를 모방하는 방식으로만 작업할 수 있고, 정식 실행 주체로 인정받지 못하면 필요한 권한을 얻을 수 없다. 따라서 시스템은 신뢰할 수 있는 실행 경로와 관리 및 추적이 가능한 권한 체계를 제공해 애플리케이션 생태계와 공존할 수 있어야 한다.

스텝편은 기존 OS에 AI 기능을 덧붙이는 대신, AI 에이전트에 필요한 시스템이 무엇인지부터 검토해 AI 에이전트 네이티브 운영체제 'Step AOS'를 새롭게 설계했다. AI 에이전트를 시스템에 처음부터 내재된 구성 요소로 만든 것이다.



이를 위해 스텝편은 컴퓨팅과 데이터, 애플리케이션 및 서비스 세 영역에서 시스템 기반을 AI 에이전트에 맞게 개편했다.

컴퓨팅 영역에서는 통합 자원 공급 엔진이 CPU와 GPU, NPU 등 이기종 컴퓨팅 자원을 일괄적으로 배분하고 최적화한다. 이로 인해 AI 에이전트가 백그라운드에서 계속 실행되는 동안에도 빠르고 안정적으로 작동하면서 전력 소모를 줄일 수 있다.

데이터 영역에서는 통합 시맨틱 데이터 레이어가 인식 정보와 사용자 행동, 개인 데이터를 의미 단위의 파일로 변환한다. 변환된 데이터는 고속 하이브리드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전송돼 AI 에이전트가 정보를 기억하고 이해하는 데 활용된다.

애플리케이션 및 서비스 영역에서는 기능 모듈화 엔진이 시스템과 애플리케이션의 기능을 수천 개의 최소 단위로 나눈다. 이 기능들은 MCP 표준을 통해 통합 제공되며, AI 에이전트와 외부 개발자는 필요한 기능을 바로 연결해 자유롭게 조합할 수 있다.

STEPX 공개, AI 네이티브 단말기 상용화 선점

스텝펀은 이날 세계 최초의 LLM 기반 AI 네이티브 스마트폰 'STEPX Neo'를 공개하고, 7월 17일 세계인공지능대회(WAIC)에서 처음 선보일 예정이라고 밝혔다. STEPX Neo는 Step AOS와 Amoo를 탑재해 모델과 소프트웨어, 하드웨어를 하나로 통합했다. 이 제품은 중국이 처음 시행한 <AI 단말기 지능화 등급(人工智能终端智能化分级)> 국가표준에서 L3 인증을 받았다. L3는 현재 받을 수 있는 가장 높은 인증 등급으로, AI 에이전트 스마트폰 가운데 이 인증을 받은 제품은 STEPX Neo가 유일하다.



STEPX는 씨트립, 알리페이, 디디, 메이똌, WPS, 젠잉 등과 AI 분야에서 협력하고 있다. 여행, 공공서비스, 생활 서비스, 업무, 콘텐츠 제작 등 다양한 분야를 아우르는 개방형 AI 에이전트 생태계를 함께 구축할 계획이다.

[전망] 신뢰가 경쟁력, 안전한 AI 에이전트 생태계 구축

STEPX는 상하이인공지능연구소와 함께 <차세대 AI 에이전트 시스템 보안 기술 백서(新一代智能体系统安全技术白皮书)>와 <온디바이스 LLM 사이버 보안 지침(端侧大模型网络安全指南)>을 발표했다. 이와 함께 신뢰성, 가시성, 통제성, 가역성을 핵심으로 하는 에이전트 보안 체계를 처음으로 정립했다.



모든 작업은 신뢰실행환경(TEE)에서 처리되며 전 구간에 암호화가 적용된다. 각 작업 단계는 기록을 확인하고 추적할 수 있으며, 작업은 샌드박스에서 분리된 상태로 실행하고 권한은 필요한 범위에서만 부여된다. 잘못 실행된 작업은 한 번에 취소하거나 단계별로 되돌릴 수 있다.



AI 란단말기가 스스로 판단하고 작업할 수 있는 시스템 환경과 신뢰성을 갖추게 되면서, AI 에이전트가 디지털 공간을 넘어 일상으로 확산하는 새로운 시대가 열릴 전망이다.

참고자료

- ◆ 신라망(新浪网). 세계 첫 'AI 에이전트 스마트폰' 등장
<https://finance.sina.com.cn/tech/it/2026-07-13/doc-inihspyr7428559.shtml>

[산업분석] 다완구에 펼쳐진 'AI 하드웨어 생태계'

AI 창업 시장이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고 있다. 2023년과 2024년에는 모델 자체의 성능을 둘러싼 경쟁이 치열했다면, 이제는 AI가 어떤 제품의 형태로 소비자들의 일상에 스며들어야 하는지에 대한 보다 현실적인 고민이 확산되고 있다.

그 해답은 다완구(大湾区)에서 구체화되고 있다. 이곳은 소비자 전자제품 공급망이 잘 갖춰져 있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빠르게 테스트하고 개선할 수 있는 창업 생태계도 조성돼 있다. 대형 언어모델의 성능이 향상되고 추론 비용이 낮아지면서 AI를 탑재한 하드웨어 제품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다완구는 세계에서 가장 활발한 AI 하드웨어 혁신의 중심지로 다시금 주목받고 있다.



AI 하드웨어 창업 열풍

창업기업들은 기존 하드웨어에 AI 기능을 추가하는 데 그치지 않고, 대형언어모델을 기반으로 제품의 형태를 새롭게 설계하고 있다.

■ 어린이용 AI 단말기 '닥터룩AI(Dr.LookAI)'

설립 2년 차인 닥터룩AI (Dr.LookAI, 噜咔博士)는 'AI 시대에 아이들은 어떤 방식으로 인공지능을 처음 접하게 될까'라는 질문에서 출발했다.

양군(杨坤) CEO는 어린이용 AI의 핵심이 '대화'가 아닌 '멀티모달 인식'에 있다고 보고 있다. 표현력이 충분히 발달하지 않은 아이들에게는 정확한 내용을 입력하는 것보다 보고, 말하고, 가

리키고, 사진을 찍는 방식이 더 자연스럽게 때문이다. AI가 어린이와 소통하려면 먼저 현실 세계를 이해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닥터룩AI는 이를 바탕으로 휴대용 AI 학습 카메라를 개발했다. 어린이가 식물이나 곤충, 전시물 등을 촬영하면 AI가 대상을 인식해 관련 지식을 설명하고 두 가지 언어로 대화를 이어간다. 정해진 콘텐츠만 제공하는 기존 교육용 기기와 달리, AI를 활용해 단순한 지식 전달 도구를 넘어 아이의 성장을 함께하는 동반자 역할을 한다. 현재 누적 이용자는 25만 명을 넘어섰으며, 월 평균 이미지 인식 횟수는 5,000만 회 이상이다. 올해 6월에는 북미 시장에 진출했으며, 구독형 서비스도 도입도 추진하고 있다.



■ 피지컬AI 로봇 기업 '림스다이나믹스(LimX dynamics, 逐际动力)'

피지컬AI은 AI가 물리적 세계로 확장되는 대표적인 기술이다. 과거 로봇은 미리 설정된 프로그램에 따라 움직였지만, 최근 VLA(시각·언어·행동) 모델과 WAM(세계행동모델)이 발전하면서 자연어를 이해하고 스스로 동작을 계획해 복잡한 작업까지 수행할 수 있게 됐다.

림스다이나믹스는 로봇의 핵심 기술을 세 단계로 구분한다. 운동 제어를 담당하는 '소뇌'와 시각 인식·동작 기술 계층, 피지컬AI 에이전트 운영체제인 'OS (COSA)'다.

공동창업자인 천화(谌骅) CTO는 올해가 피지컬AI이 본격적으로 상용화되는 원년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표준화·모듈화된 범용 훈련 기반이 부족하다는 점은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다. 로봇을 공장에 투입하려 해도 세부 공정을 이해하는 기술 인력이 부족하면 실제 도입으로 이어지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이에 린스다이나믹스는 알리바바 클라우드와 함께 'FluxVLA Engine'을 개발했다. 데이터 처리부터 모델 훈련, 배포까지 전 과정을 지원하는 범용 훈련 인프라다. 알리바바 클라우드의 PAI 플랫폼에 탑재됐으며, 전 세계 개발자에게 오픈소스로 공개됐다. 기존에는 모델을 설정하는 데 며칠이 걸렸지만, 이제는 약 30분이면 가능하다.

이는 로봇 시장의 경쟁 기준이 달라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앞으로 로봇 제품의 경쟁력은 기계 구조뿐만 아니라 AI 시스템과 지속적인 성능 개선 역량에 따라 좌우될 전망이다.

■ 오픈소스 생태계 '스팡룽하이(十方融海·샤오즈AI)'

과거에는 AI 하드웨어를 개발하려면 칩과 임베디드 시스템, 모델 호출, 클라우드 배포, 음성 상호작용 기술을 모두 갖춰야 해 중소 개발팀이 감당하기에는 부담이 컸다.

샤오즈AI는 에이전트 플랫폼과 통신 프로토콜, 하드웨어 연동 기능을 하나의 프레임워크로 통합해 오픈소스로 공개했다. 개발자들은 해당 프레임워크를 활용해 AI 하드웨어를 빠르게 개발할 수 있게 됐다.



올해 6월 기준 샤오즈AI 생태계를 기반으로 개발된 AI 하드웨어는 200만 대를 넘어섰으며, 완구와 차량용 기기, 건강관리, 노인 돌봄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되고 있다.

홍콩중문대 선전캠퍼스 공과대학의 우천예(吴辰晔) 부학장은 판매량과 보급 추이가 시장의 변화를 가장 직접적으로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소비자와 판매업체, 제조사가 모두 적극적으로 움직인다는 것은 AI 탑재가 전자제품의 새로운 표준으로 자리 잡았음을 보여준다는 것이다.

이러한 변화는 AI로 전자제품의 생산성이 높아지면서 나타나기 시작했다. 과거 전자제품은 도구나 소비재에 머물렀지만, 대형언어모델이 탑재되면서 이해와 생성, 상호작용, 의사결정 지원 기능을 갖추게 됐다. 이에 따라 전자제품의 역할도 단순한 '도구'에서 '생산성을 높이는 기기'로 진화하고 있다.

'클라우드+오픈소스', AI 하드웨어 창업의 새로운 공식

최근 AI 하드웨어 창업이 활기를 띠는 것은 공급망과 제품 개발 역량이 빠르게 발전한 데다, 이를 뒷받침할 AI 인프라까지 갖춰졌기 때문이다.

과거에는 하드웨어 기업이 모델 훈련과 추론 시스템 구축, 글로벌 서비스 운영, 지속적인 업데이트에 필요한 막대한 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웠다. 그러나 스타트업의 경쟁력은 기존 기반 모델을 자체적으로 다시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AI를 다양한 분야에 접목해 사용자의 문제를 해결



해주는 데 있다. 이에 따라 최근에는 오픈소스 대형언어모델(LLM)을 활용해 새로운 제품을 개발하고, 제품 기획과 사용자 경험 개선에 역량을 집중하는 기업이 늘고 있다.

림스다이나믹스의 장웨이(张巍)는 LLM을 뛰어난 두뇌를 갖췄지만 물리적인 행동 능력은 갖추지 못한 '스티븐 호킹'에 비유했다. FluxVLA Engine은 LLM에 작업 수행 능력을 부여하고, 이를 다양한 환경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해 실제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게 한다.

알리바바 클라우드의 천리웨이(陈立伟) 총경리는 FluxVLA Engine을 피지컬AI과 산업 현장을 연결하는 '파이프라인'에 비유했다. 피지컬AI이 개별 현장의 특성을 파악하고 실제 사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설명이다. 사업성이 높은 활용 분야를 발굴하고 대량생산을 추진하는 한편, 데이터가 쌓일수록 제품 성능이 향상되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는 것이 양사의 협력의 목적이다.

천 총경리는 인터넷 시대에 각종 기기가 전자화되고 데이터 수집·분석 기술이 접목되면서 지능형 제품으로 발전했다고 설명했다. 이제 스마트폰과 스마트워치, 로봇은 클라우드 인프라를 통해 AI와 연결되면서 기능과 활용 범위를 더욱 넓혀가고 있다.

현재 큐원(Qwen, 千问) LLM을 도입한 스마트 하드웨어 기업은 15만 곳을 넘어섰다. 중국 주요 피지컬AI 기업과 글로벌 10대 스마트폰 제조사도 모두 큐원 LLM을 활용하고 있다.

새로운 산업 분업 체계, 전문 분야별 협업으로 상용화 추진

AI가 하드웨어 산업의 분업 구조를 재편하고 있다. 과거에는 칩과 모듈, 완제품 생산을 중심으로 경쟁했다면, 이제는 새로운 산업 체계가 형성되고 있다. 기반 모델은 개방 범위를 넓히고,



클라우드 플랫폼은 컴퓨팅 인프라를 제공하며, 중간 단계의 기업은 AI 에이전트와 산업별 솔루션을 개발하고, 완제품 업체는 활용 분야와 사용자 경험에 집중한다. 기업들이 각자의 전문 분야를 중심으로 협력하면서 AI의 실제 현장 도입도 빨라지고 있다.

천리웨이 총경리는 AI 하드웨어가 소프트웨어만으로 완성되는 제품과는 다르다고 강조했다. 알고리즘과 구조 설계부터 공급망, 생산, 유통 등 분야가 긴밀하게 맞물려야 하기 때문이다. 다완구는 이러한 역량이 한 지역에 밀집해 있어 다양한 기술과 아이디어를 빠르게 결합하고, 시행착오를 거쳐 제품을 개선할 수 있다. 다른 지역에서 제품의 사업성을 검토하는 동안 다완구에서는 이미 시제품을 제작해 시장 반응을 확인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다완구는 지난 수십 년간 피쳐폰과 스마트폰, 스마트 하드웨어로 이어지는 산업 변화를 거치며 수많은 소비자 전자제품의 혁신을 이끌어왔다. 이제 대형언어모델의 발전에 힘입어 새로운 산업 전환의 출발점에 다시 섰다.

참고자료

- ◆ 다완구과학포럼(大湾区科学论坛). 다완구럼에 펼쳐진 'AI 하드웨어 생태계'
https://mp.weixin.qq.com/s/Ujd8FBm4t-1L_0l6ZUQ-8Q

[기업분석] 중국 피지컬AI 로봇 기업-우바인텔리전스(五八智能)



기업 개요

우바인텔리전스(五八智能)는 차이나노스인더스트리그룹(中国兵器工业集团) 산하 피지컬AI 로봇 기업으로, 중국 중앙 국유기업을 대표하는 휴머노이드 로봇 기업이다. 사족보행 로봇과 휴머노이드 로봇, 로봇 지능화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며 안보와 산업 분야의 선도 기업으로 빠르게 성장했



다.

우바즈닝은 중국 최초로 산업용 보행 로봇의 대량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 중국公安부와 공업정보화부가 추진하는 안보 분야 로봇 시범사업에도 기술지원 기관으로 참여하고 있다. 우바인텔리전스의 사족보행 로봇 플랫폼을 기반으로 개발된 '로봇늑대(机器狼)' 시스템은 '9·3 열병식' 대열에 참가했으며, 중국의 주요 국영 매체에도 소개됐다.

우바인텔리전스는 국가 중점 연구개발 사업을 지속적으로 수행하며 독자적인 연구개발과 혁신 역량을 쌓아왔다. 이와 함께 피지컬AI 로봇의 중간 테스트 기지를 구축해, 로봇 시험·검증과 데이터 수집·훈련, 대량생산 분야에서도 중국 최고 수준의 역량을 확보했다.

다성(大圣) 휴머노이드 로봇

다성 휴머노이드 로봇은 인식과 제어를 결합한 강화학습 기술을 바탕으로 로봇의 현재 자세와 주변 환경의 변화를 파악해 움직임을 계획한다. 다양한 지형에 대한 적응력을 크게 높였으며 움직이는 동안에도 안정적으로 균형을 유지한다. 알고리즘 플랫폼과 방대한 학습 데이터를 활용해 다양한 환경에 필요한 작업 수행 기능을 빠르게 개발할 수 있다. 또한 여러 센서를 융합한 SLAM 기

술을 통해 사람과 로봇이 같은 공간에서 움직여도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는 자율주행 기반을 마련했으며, 공장과 산업단지 등에서는 스스로 지도를 생성하고 위치를 파악해 경로를 탐색할 수 있다.



텐랑(天狼) Q25

텐랑 Q25는 산업용 험지 주행 성능을 중심으로 복잡한 작업 현장에 맞춰 개발됐다. 진흙과 빙판, 모래 등 다양한 노면에 유연하게 대응하며 열악한 환경에서도 작업할 수 있다.

고성능 동작 제어 시스템을 탑재해 최대 40도 경사면을 오르내릴 수 있으며, 연속 오르막 주행과 급경사 고속 등판 등 고난도 동작도 수행할 수 있다. 업계 최초로 고속 험지 주행 방식을 구현해 기존 사족보행 로봇의 느린 이동 속도를 개선하고 험지에서의 작업 효율을 높였다.



경찰용 로봇개 솔루션

경찰과 보안 현장에서는 수색과 점검, 안내 방송, 위험 요소 제거 등 다양한 업무에 무인장비를 활용한다. 우바인텔리전스는 이러한 업무에 맞춰 로봇개에 용도별 장비를 결합한 다목적 사족보행 로봇 솔루션을 개발했다. 보안 순찰과 치안 관리 등 현장 상황에 따라 필요한 장비를 바꿔 활용할 수 있다.

■ 순찰·방법용 로봇개

우바인텔리전스의 Q20A 시리즈 순찰·방법 로봇개는 복잡한 비정형 지형에서도 스스로 이동하며 관할 구역의 주요 장소를 순찰한다. AI로 위험 상황을 감지해 경보를 보내고, 상황실의 지시에 따라 현장에 신속하게 투입된다. 현장 상황도 실시간으로 전달해, 경찰의 '3510' 업무 목표 달성을 지원한다.



■ 폭동진압용 로봇개



우바인텔리전스의 폭동진압용 로봇개는 경찰의 무인 대테러·폭동 진압과 지능형 현장 대응을 위한 지상 자전 플랫폼이다. 용도에 맞는 장비를 탑재해 작전 범위를 넓힐 수 있으며, 비살상 방식의 대테러 폭동 진압 작전과 대규모 소요 사태를 진압하는 데 활용할 수 있다.

참고자료

- ◆ 우바인텔리전스 웹사이트(五八智能科技官网)
<https://58znkj.com>

[지역분석] 헤이룽장성 치치하얼 하이테크산업구

개요

허가 일자

헤이룽장성 치치하얼 하이테크산업구는 2010년 설립

주요 산업

장비제조, 바이오의약, 디지털 경제

주요 지표

구분	2022년	2023년	성장률
등록 기업 수	2014개	2677개	32.92% ↑
수출 총액	33.13억 위안	34.93억 위안	5.42% ↑
하이테크 기업	109개	137개	25.69% ↑
공업 총생산액	471.83억 위안	477.00억 위안	1.10%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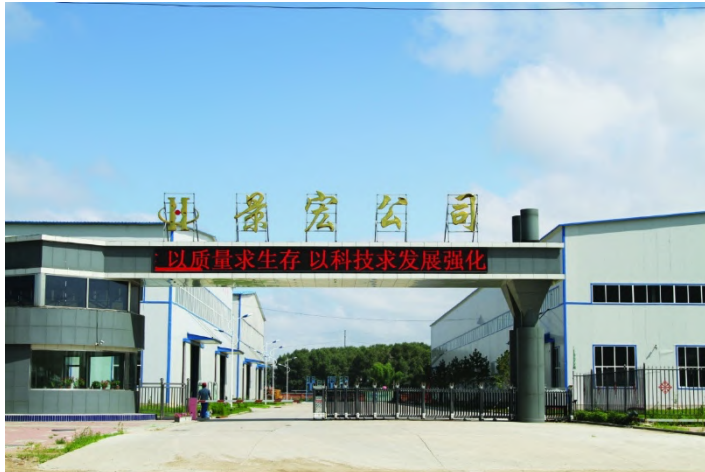
치치하얼(齐齐哈尔) 하이테크산업구는 1992년 조성됐으며, 2010년 중국 국무원의 승인을 받아 국가급 하이테크산업구로 승격됐다. 동 산업구는 중국 최북단에 위치한 국가급 하이테크산업구로, 국가 저탄소 시범단지와 고급인재 주도형 특화 플랫폼, 국가급 과학기술기업 인큐베이터, 국가 정밀·초정밀 제조 특화단지, 국가 기업혁신 포인트제 시범단지 등에 잇따라 선정됐다.



치치하얼 하이테크산업구는 정밀·초정밀 제조와 첨단 제조업을 주력 산업으로 육성하고 있다. 디지털 기술과 첨단·미래 기술형 기업도 집중적으로 육성해 과학기술 혁신기업의 본부 거점으로 조성하고 있다.

확장 구역인 신흥산업구는 디지털 경제와 바이오 경제, 빙설 경제, 디자인 산업 등 전략적 신흥 산업을 중점적으로 개발해 관련 클러스터를 구축하고 있다. 룡사(龙沙), 젠화(建华), 테펑(铁峰), 양양시(昂昂溪), 메이리스(梅里斯), 푸라얼지(富拉尔基), 푸위(富裕), 너허(讷河) 등 주요 산업단지는 하이테크산업구와 연계해 대형 CNC 공작기계와 철도교통 장비, 야금 장비, 신에너지 장비 제조, 식품 가공, 신소재, 바이오산업 등 전통 주력산업을 육성해 관련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있다.

현재 치치하얼 하이테크산업구에는 하이테크 기업 137개와 과학기술형 중소기업 123개가 입주해 있다. 국가급 과학기술기업 인큐베이터 1곳과 국가급 기술연구센터 4곳을 비롯해 성(省)급 혁신 플랫폼 83곳, 성급 창업 플랫폼 9곳도 운영 중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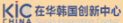
KIC 뉴스



[행사공고] 2026 베이징대학교 창업캠프 서울 로드쇼	24
[행사공고] 2026 WRC 한중로봇혁신협력포럼	25
중국 과학기술 분야 행사 정보	26



[행사공고] 2026 베이징대학교 창업캠프 서울 로드쇼

2026 베이징대학교 창업캠프 한국 서울 로드쇼

2026.8.14 한국 서울 고려대학교
Hana Square

· 주최기관 ·
베이징대학교 창업캠프

· 협력 기관 ·
글로벌혁신센터(KIC중국)
베이징대학교 혁신창업학과
베이징대학교 동문회

기업 모집

베이징대학교 창업캠프가 한중 혁신 생태계를 연결하고, 한국 기업의 중국 시장 진출을 지원하는 「2026 베이징대학교 창업캠프 서울 로드쇼」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중국 진출을 원하는 유망 과학기술 기업에게 베이징대 창업 특강과 베이징·톈진 지역의 현지 네트워크·자원을 제공한다.

*모집 대상: 기술 기반 한국 혁신 기업이라면 예비팀부터 성장기 스타트업까지 누구나 지원 가능하다.



행사 일정

시간: 2026년 8월 14일
장소: 한국 서울 고려대학교 Hana Square

○ 오전 9:30-12:00
베이징대학교 창업 특강

○ 오후 13:00-18:00
중국진출 희망 한국기업 로드쇼

혜택 및 지원

- 중국 시장 진출을 위한 전략 컨설팅 및 현지 네트워크 연계
- 한중 정부 및 민간 차원의 맞춤형 비즈니스 자원 매칭 지원
- 베이징대학교 창업 특강 참여 기회 (모든 참가 프로젝트 대상)
- 행사 종료 후 1년간 창업 전 과정에 걸친 무료 컨설팅 제공
- 장기적인 창업 가속화 프로그램을 통한 지속적 성장 지원

참가 기업 신청

방식 1—온라인 정보 제출 방식 2—메일로 자료 제출



추천 코드에
KIC중국 입력



QR코드 스캔 후 워드 파일
작성해서 지정 메일로 송부

심사 일정

- 신청 마감: 7월 25일까지
- 심사 및 결과 통보: 8월 5일까지 진행

일반 관람자 참가 신청 및 문의

zhangyao@kicchina.org
(中)+86 010-6780-8840
(韩)+82 070-4084-1234

[행사공고] 2026 WRC 한중로봇혁신협력포럼

KIC 在华韩国创新中心 kotra NICTC 中国科技部 中关村国家自主创新示范区 中关村云计算产业联盟

2026WRC (World Robot Conference) 한중로봇혁신협력포럼

장소 北京亦创国际会展中心
남회의동 2층 S201A+B

시간 2026.08.20(목) 09:00 - 17:00



행사소개 :

2026 월드로봇컨퍼런스(WRC)기간 글로벌혁신센터(KIC중국)와 대한 무역투자진흥공사 베이징무역관 공동으로 한중로봇혁신협력포럼 및 한·중공급망1:1매칭상담회를 개최합니다. 한·중 양국 로봇산업의 기술 교류를 심화하고, 로봇 분야의 상설 연간 플래그십 교류플랫폼을 구축함으로써 산업·기술혁신·자본 간의 정밀한 연결을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번 포럼에는 국내 우수 로봇기업 12개사가 참가하여 기업 로드쇼(IR)를 진행할 예정이며 참가기업들은 협동로봇 및 휴머노이드 로봇 본체를 비롯해 피지컬 AI 기반모델, 시뮬레이션 플랫폼 등 로봇의 '대뇌·소뇌' 기술과 정밀 감속기, 구동칩, 액스터러스 핸드(Dexterous Hand), 센서, 산업용 배터리 등 핵심 부품 분야의 혁신기술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또한 WRC의 글로벌 플랫폼을 적극 활용하여 한·중 기업 간 기술 협력, 공급망 구축, 응용 시나리오 발굴, 투자 및 금융 연계 기회를 확대하고, 양국 로봇산업의 상호 보완적 협력과 시너지 창출을 통해 지속 가능한 공동 발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행사일정

1부: 한국로봇혁신기업 K-Demo Day

09:00-09:10	○	참석자 체크
09:10-09:35	○	오프닝 및 축하
09:35-10:15	○	기조강연
10:15-11:55	○	혁신기업 로드쇼

2부: 로봇공급망파트너링 상담회

14:00-17:00	○	1:1매칭 상담회
-------------	---	-----------

신청방법 CONFERENCE GUIDE

- QR 스캔 후 7/30 이내 신청
- 기간 내 선착순 150명 KIC중국 등록 지원
- 기간 초과 및 인원 초과시 개별 통보 및 구배



행사장소 ACTIVITY PLACE



장소: 北京亦创国际会展中心 (西3门) 南会议中心 二楼S201A+B
80 meters north of the intersection of Jingyuan Street and Hongda South Road, Daxing District, Beijing

참가 기업

Neuromeka

Neuromeka는 협동로봇 기술을 기반으로 제조 자동화 혁신을 선도하는 기업이다. 자체 로봇 제어기와 소프트웨어 기술을 바탕으로 협동로봇, 자율이동로봇(AMR), 맞춤형 자동차 솔루션을 제공하며, 고객의 생산성 향상과 스마트 팩토리 구축을 지원에 다양한 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고 있다.

Neubility

Neubility는 2017년 설립된 지능형 로봇 전문 기업으로, 카메라 기반 자율주행 로봇과 통합 관제 플랫폼을 통해 배달·순찰·물류 등 반복적이고 위험한 현장 업무의 자동화를 추진하고 있다. 최근에는 차세대 Physical AI 로봇 Billi를 통해 이동과 조작이 결합된 로봇 서비스 사업영역을 확장하고 있다.

Dynamic Solution

Dynamic Solution은 AI·로봇틱스 융합 기술기업으로, 디지털·AI 재활의료기기 기술을 기반으로 뇌·컴퓨터 인터페이스(BCI), 서비스로봇, 산업용 로봇 등 다양한 분야로 사업을 확대하고 있다. 축적된 의료 데이터와 임상 경험을 바탕으로 인간의 뇌와 로봇이 연결되는 차세대 융합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또한 미국 FDA 등록과 다수의 글로벌 특허를 확보하였으며, CES 혁신상 및 글로벌 디자인 어워드 등 국제적인 수상 실적을 보유하고 있다.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 중이다.

RLWRDL

RLWRDL은 인간 수준의 dexterous 손 조작·인지 능력을 구현하는 로봇틱스 파운데이션 모델(RFM)을 개발하는 피지컬 AI 기업이다. 2024년 설립해 샌프란시스코·서울·도쿄에 거점을 두고, RFM 모델 RLDX-1을 오픈소스로 출시하였고, 고정밀 4D+ 멀티모달 산업 데이터로 로봇이 산업 현장에서 사람처럼 보고 느끼고 행동하게 한다. 한국·일본 주요 기업들과 상용화를 추진하고 있다.

Iron Device

Iron Device는 디지털, 아날로그, 그리고 전력(Power)이 통합된 최첨단 단일 실리콘디바이스솔루션을 제공하는 혼성신호(Mixed Signal) 전문 기업이다.

THE IMC

THE IMC는 농업AI 전문기업으로, 농업AI로봇(FARMSBOT), 농업AI 플랫폼(FARMSTOM), AI 복합환경제어(FARMSCON)를 통합한 자율형 스마트농업 솔루션을 개발·제공하고 있다. 데이터와 AI를 연결하여 지속가능한 스마트농업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WONIK ROBOTICS

Wonik Robotics는 피지컬 AI 로봇 기업으로, 로봇핸드, 자율이동로봇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대표 제품 Allegro Hand는 전 세계 연구기관에 공급되며, 중국 베이징, 상하이에 대리점을 운영 하며 레드닷 디자인 어워드, 국내 로봇기업상 등 다수의 수상 이력을 갖추고 있다.

HYUNDAI SUNGWOOL SOLITE

HYUNDAI SUNGWOOL GROUP은 남측전지와 리튬배터리팩, 로봇용 모터·감속기, 주물부품을 기반으로 로봇 부품 사업화를 추진하고 있다. 기존 로봇용 배터리팩 및 주물부품 공급 경험과 자동차 부품 분야에서 축적한 품질관리·공정관리·양산 대응 역량을 바탕으로 고객 맞춤형 개발과 모터·감속기·배터리팩-주물부품 통합 공급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SOLID VUE

SOLID VUE는 Solid-State LiDAR의 핵심 부품인 CMOS 기반 SPAD 센서 IC를 개발하는 팹리스 반도체 스타트업이다. 기계식 라이다의 한계를 극복한 솔리드스테이트 방식으로 고효율·저비용 센싱 솔루션을 제공하며, 2027년 상반기 양산 예정인 SV-120을 중심으로 로봇틱스·자율주행 시장을 공략하고 있다.

SeneS Technology

SeneS Technology는 로봇, 스마트 제조설비 및 자동차 장비에 적용되는 초정밀 감속기 전문기업으로, 하모닉 감속기「Zero Back Drive」와 사이클로이드 감속기「Servo Mate Reducer」를 주력 제품으로 공급하고 있다. 정밀 감속기는 로봇 관절(Joint)의 핵심 부품으로서 위치 정밀도, 반복 정밀도, 강성 및 내구성을 결정하는 핵심 요소이며, 로봇 원가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전략적 부품이다.

Immersivecast

Immersivecast는 2017년 설립된 한국 기업으로 로봇 시뮬레이션, 디지털 트윈, XR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VR 기반에서 AI 로봇 시뮬레이션 클라우드 플랫폼으로 전환해 현장 적용 오류를 없애고 있으며, 국가 공식 표창을 수상했고 독일에 제품을 수출하고 있다.

AidALL

AidALL은 2023년 12월 5일 설립된 딥테크 스타트업으로, 생체모사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딥러닝의 구조적 한계를 보완할 수 있는 차세대 Physical AI 제어 시스템을 만들고 있다. 물리학·수학, 신경과학을 기반으로 하는 원천기술 인공지능을 연구하며, 단순한 통계 기반의 추론이 아닌 물리량을 기반으로 추론한다. 에이전트는 이를 바탕으로 Physical AI의 현실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중국 과학기술 분야 행사 정보

명칭	기간	장소	분야
제9회 지능형 로봇 및 제어 공학 국제 학술 대회(IRCE2026)	2026.08.03-2026.08.06	우루무치	인공지능
제2회 스마트 전망 및 지속가능 에너지 국제 컨퍼런스(SGSE2026)	2026.08.03-2026.08.05	란저우	에너지
제5회 국제 전자 전기 공학 및 자동 제어 대회 (EEEAC 2026)	2026.08.07-2026.08.09	란저우	에너지
제6회 첨단 알고리즘과 신경망 국제학술회의 (AANN 2026)	2026.08.07-2026.08.09	칭다오	인공지능
2026 중국 자동차 내외장 지능형 및 혁신 컨퍼런스	2026.08.12	상하이	자동차
2026 중국 자동차 시트 기술 혁신 서밋 포럼	2026.08.13	상하이	자동차
제9회 패턴 인식 및 인공지능 국제 학술대회 (PRAI2026)	2026.08.14-2026.08.16	상하이	인공지능
제11회 국제 컴퓨팅 지능 및 응용 컨퍼런스 (ICCIA2026)	2026.08.14-2026.08.16	칭다오	인공지능
제8회 인공지능 기술 및 응용 국제학술회의 (ICAITA 2026)	2026.08.21-2026.08.23	베이징	인공지능
2026 세계 동력배터리 컨퍼런스	2026.09.03-2026.09.04	이빈	에너지
2026년 중국 원자력 발전 운영 및 유지보수 장비 및 기술 혁신 및 개발 컨퍼런스	2026.09.15	옌타이	에너지
2026년 중국 국제 핵융합 및 원자력 에너지 산업 컨퍼런스 및 전시회	2026.09.15-2026.09.17	옌타이	에너지
2026 세계 신에너지 자동차 대회	2026.09.22-2026.09.24	하이난	자동차
2026년 다중모드와 인공지능 국제학술회의 (ICMAI 2026)	2026.09.17-2026.09.19	우한	인공지능
2026년 IEEE 제9회 정보시스템 및 컴퓨터보조교육 국제학술회의(ICISCAE 2026)	2026.09.27-2026.09.29	다롄	인공지능

트렌드 중국 창업

info@kicchina.org로 구독 신청하시면
매주 중국의 다양한 창업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네이버 블로그와 위챗 공식계정에서도 열람 가능합니다.

네이버 블로그



위챗 공식계정



글로벌혁신센터 (KIC 중국)